The Hope Report 18호 [2013. 9]

일본 마을만들기 현장을 가다

목차

1. 100여 년 역사의 폐교를 이용한 도쿄 장난감 미술관
2. 공해 도시에서 환경 선진 도시로 변모한 카와사키 시의 환경 전략
3. 지역 복지 증진과 연계시킨 카와사키 시 지역 고용 창조 사업
4. 시민 활동의 산실 카나가와 현민 활동 서포트 센터
5. 오가와마치, 유기 재배와 자연 에너지로 30세기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6. 역사적 경관을 살린 카와고에 시 크라즈크리 상점가의 마을만들기
7. 미타카 시의 SOHO City 미타카 구상과 (주) 마을만들기 미타카
8. 지역 시니어들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미타카 실버 인재 센터
9. 도쿄 워커즈 콜랙티브 협동조합의 히그라시 사업장을 찾아서

작성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westwood@makehope.org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개요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은 ㈜공공연수와 함께 도쿄와 인근 도시에서 '지역순환과 사회적경제 구축'을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 목민관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2013년 8월27일-8월31일까지 4박5일 동안 이루어졌다. 연수단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주민참여, 지역고용정책이 특징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와 적용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리포트는 연수단과 함께 방문한 지역과 사례, 시사점 등을 정리한 것이다.

1.100여 년 역사의 폐교를 이용한 도쿄 장난감 미술관

나리타 공항에서 연수팀을 만나 인사를 나눌 틈도 없이 바로 도쿄 신주쿠로 향했다. 도쿄 장난감 미술관에 도착하니 이미 시간이 오후 4시. 시내 중심가 골목을 5분 정도 걸어 들어가니 지금은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이 나온다. 낡은 3층 교사와 작은 운동장과 유구들, 그리고 한켠에 오롯이 남아 있는 수영장까지 옛 모습 그대로다. 그러나 계단을 올라 2층 도쿄 장난감 미술관 접수 창구를 들어서면 자연목으로 예쁘게 단장한 동화 속의 세계가 펼쳐진다.

1만 5천여 점 장난감과 함께 동심으로 안내해 주는 미술관

폐교의 교실을 개조해 만든 도쿄 장난감 미술관(NPO법인 일본 굿토이 위원회 운영, 관장 타다 치히



폐교에 들어선 도쿄 장난감 미술관을 찾아

로多田千尋). 이곳에 오면 자연목 향취가 물씬 풍기는 장난감 숲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삼나무 편백나무 등 그윽한 자연목의 향취를 만끽하면서 1만 5천여 점 장난감과 함께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는 도심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1~3층까지 각 테마별로 나뉘어져 있는 9개의 전시장에서는 아직 기어다니는 아기부터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각각의 전시장에서 장난감 놀이에 푹 빠져 있다. 같이 온 엄마 아빠들도 같이 장난감을 즐기느라 정신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 사이 사이에 빨간 앞치마를 두른 '장난감 학예원'들이 놀이 방법을 지도해 주고 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방이나 사람들로 북적거려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평일에는 보통 2~3백 명이, 주말에는 4~5백 명이 찾아오는데, 요즘같은 여름 휴가철에는 지방에서 오는 사람도 많아 하루 8백 명 이상이 찾는다는 것이 안내해 주는 바바 키요시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무와 더불어 성장하는 환경을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이 0~2세 아기들 전용 공간인 1층 '목육(木育) 광장'이다. 바닥과 벽, 그 위에 놓인 장난감까지 모두 부드러운 국내산 삼나무로 만들었다. 장인들이 손으로 하나하나 제작한 것들이라 방안 전체에서 삼나무향이 물씬 풍겨온다. 그 향이 기분 좋은지 아기들이 나지막한 터널속을 기어 나오기도 하고, 모난 데 없이 둥글둥글한 나무볼을 바닥에 굴리며 꺄르륵거리기도 한다. 바바 사무국장은 값비싼 나무 장난감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나무 장난감은 열전도율이 낮아 체온을 빼앗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장시간 집중해 놀 수 있고, 형태가 단순해 다양한 용도로 여러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놀 수 있지요."



삼나무향 물씬 풍기는 1층 아기들의 목육(木育) 광장

이처럼 목육(木育), 즉 '태어난 순간부터 나무로 아이들을 키우자!'는 미술관이 가장 중시하는 이념으로, 그동안 미술관 운영과 함께 나무 장난감 보급 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아우디의 전국 60개 매장에 자연목으로 키즈룸을 조성한 것을 비롯해, 미술관의 장난감을 트럭에 가득 싣고 쇼핑몰이나 공공 시설에 출장 놀이 지도를 나가기도 한다. 올 11월에는 오키나와에 체험형 장난감 뮤지엄을 자매 시설로 개관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역점 사업이 '우드 스타트' 사업인데, 주민들의 출산 기념 선물로 지자체가 나무 장난감을 보낸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무를 체험하면서 생애에 걸쳐 나무를 가까이 하자는 취지다. 신주쿠구와 처음 시작해 지금은 전국 5개 지자체의 출산 기념 선물을 관장하고 있다. 미술관에서 장난감을 디자인해 그 지역의 숲에서 자란 나무로 그 지역의 장인들이 손으로 직접 깍아 만든다. 쇠퇴일로에 있는 목재산지의 주민들에게는 지산 지소의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

도쿄 장난감 미술관의 지주는 시민 관장들과 장난감 학예원들

장난감 미술관은 타다 현 관장의 선친이 세계 각국에서 모아 온 장남감으로 1987년 나가노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다. "미술 교육 전문가였던 아버지가 장난감에 빠진 것은 아이들이 인생에서 처음 접하는 예술이 곧 장난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타다 관장이 프리젠테이션에서 덧붙인 말이다. 건물 한켠의 작은 미술관이 2008년 폐교된 옛 요츠야 제4초등학교로 확대 이전해 전국적으로 알려진 체험형 뮤지엄으로 발전한 데는 이곳을 후원하는 시민의 힘이 있었다.

1907년 개교해 100여 년의 역사를 함께 해 온 학교가 도심의 동공화로 2007년에 폐교되자, 지역 주민은 학교를 역사적 건물로 그대로 보존하고자 했다. 1934년 화재로 소실됐을 때 주민이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아 재건한 학교였으며, 전쟁 때 공습으로 주위가 온통 불바다가 됐을 때도 유일하게 기적적으로 살아 남았던 학교였기 때문이다. 협의회를 구성해 2년간에 걸쳐 그 활용 방도를 모색해 오던 지역 주민은 최종적으로 장난감 미술관에 이전을 제안해 왔다. 협소한 장소로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미술관으로서는 솔깃한 얘기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12개 교실의 개조 비용과 10배 이상으로 규모가 커지는 미술관 운영 경비가 고민이었다.

타다 관장은 고민 끝에 시민에게 돈과 시간의 기부를 호소했다. 한 구좌 (1만 엔) 이상 기부한 후원자는 나무에 이름을 새겨 미술관 벽면에 영구 보존하는 이른바 '한 구좌 관장'이 된다. 한 구좌 관장 제도는 크라우드펀드가 생소한 일본에서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둬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다. 또 많은 시민 볼런티어들이 학예사(instructor) 양성 교육을 거쳐 '장난감 학예원'이 돼 주었다. 현재 등

록자 수가 240명인데, 이들은 교대로 출근해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장남감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놀이의 세계를 넓혀주고 있다. “도쿄 장난감 미술관은 시민립(市民立)의 미술관입니다.”라고 자랑스레 이야기 하는 타다 관장, ‘시민에 의한 공공’이 평소 그의 지론이라고 한다.

… 시 사 점 …

- 시민의 공공 재산인 도심의 폐교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 공익을 위한 시설로 재활용할 수 있었다.
- 장난감 미술관이 관객의 입장료 수입으로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는 요인은 입장객이 끊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과 장난감 인스트랙터들의 볼런티어 활동으로 운영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영비의 50% 이상을 정부나 자치 단체, 기업의 위탁 사업에 의존해서는 진정한 NPO활동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타다 관장의 평소 지론으로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방침을 세우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다.

2. 공해 도시에서 환경 선진 도시로 변모한 카와사키 시(川崎市)의 환경 전략

목민관 연수 이틀째 방문지는 카와사키 시(川崎市)와 인근한 요코하마 시(横浜市). 수도권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시민 활동이 활발했던 곳이다. 먼저 카와사키 시청에 들러 아베 타카오(阿部孝夫) 카와사키 시장과 인사를 나눈 뒤 카와사키 시 임해 공단 지구에 있는 ‘카와사키 에코 생활 미래관’과 ‘생명 과학 환경 연구 센터’로 갔다. 마키 요우코(牧葉子) 카와사키 시 환경 종합 연구소 이사가



아베 타카오 카와사키시장과 함께

카와사키 시의 환경 정책을 설명하면서 우리를 카와사키 시가 자랑하는 환경 첨단 시설로 안내해 주었다.
센터에서 제공한 점심을 먹고, 우리는 올 1월에 카와사키 시가 폐교된 지역 초등학교에 새로 지은 노인 복지 시설로 갔다. 카와사키 시와 시내 복지 시설,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함께 협력해 추진해 온 지역 고용 창조 사업의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다. 그 뒤 요코하마 시로 이동하여 '카나가와 현민 생활 서포트 센터'를 방문했다. 이 센터는 카나가와 현이 1996년 시민의 비영리적인 활동(NPO)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중간 지원 조직으로 일본에서는 가장 먼저 생긴 곳이다.

공업 단지 형성과 함께 심각해진 대기 오염

카와사키 시는 타마강을 끼고 수도 도쿄와 인접해 있는 정령 지정 도시다. 도쿄만과 인접한 남동부에는 일본 유수의 대기업이 입주해 있는 중공업 단지가 펼쳐져 있으며, 도쿄에 연결되는 북서부의 구릉지에는 도쿄의 베드타운이라 할 수 있는 주택가가 형성돼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특성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카와사키 시는 1924년 인구 5만으로 시정을 시작한 이래 지금은 인구 약 140만으로 전국에서 지정 도시중 인구 밀집도가 가장 큰 대도시로 발전했다.

태평양 전쟁 전부터 제철소 등이 들어선 주요 공업 지대였던 카와사키 시는 1950년대부터 대규모 화력 발전소, 정유 공장 등 석유 화학 콘비나드가 도쿄만 매립지에 연이어 건설되면서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공업 일변도의 시정은 심각한 대기 오염을 불러, 주민에게 만성 기관지염과 기관지 천식 등 공해병을 다량 발생시켰다. 대기오염 주의보가 1969년에 29회, 1970년에는 19회나 발생했고, 주요 공장의 아황산가스 연간 배출량은 1972년 5만 6천919톤, 그리고 1970년 등록된 공해병 인정 환자 수가 4천158명에 이르렀다.
주민들의 반공해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일찌기 1951년부터 매연 방지 대책 회의를 만들어 시에 진정 활동을 하는 한편, 1963년에는 임해 지역을 매연 규제 지역으로, 1969년에는 시내 2개 구가 공해병 규제 특별 지정 지역이 됐다. 1970년에는 공해병우회가 발족하면서 공해병 인정 제도를 실시하게 됐고, 1982년에는 천식 환자와 유족 119명이 원고가 되어 정부와 공단 및 14개 기업을 상대로 공해 소송을 제기해 1999년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주민들의 반공해 정서가 높아지면서 공업 성장 일변도의 시정에 대한 비판도 거세져, 1971년도에는 노동 운동 출신인 이토사부로(伊藤三郎) 혁신자치단체장이 취임하게 됐다.

공업 성장 정책에서 시민 생활 우선 정책으로

1971년 혁신 자치 단체가 된 카와사키 시는 '시민 생활 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시청에 '공해국'을 신설하여, 공해 방지, 공해 건강 피해자 구제, 자연 환경 회복 등의 시책을 실시하게 됐다. 또한 1972년에는 시민 운동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카와사키 시 공해 방지 조례'가, 1976년에는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러한 관민 양쪽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카와사키의 대기와 수질은 정부 기준치를 달성하게 됐다. 1972년 완성한 공해 방지 센터는 현재도 24시간 자동측정기로 대기 오염을 감시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센터의 역할도 시대와 함께 발전해 지금은 지구 온난화 등 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환경 문제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하고 있다.

카와사키 시의 환경 정책은 1997년 '환경 조화형 마을 만들기 (카와사키 에코 타운)' 정책으로 공해 극복 차원을 벗어나 카와사키 시에 축적된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 선진 도시로 발전했다. 이 사업으로 정부로부터 일본 최초의 '에코타운' 지정을 받기도 했는데, 시민과 기업이 협력하여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 수거와 재활용을 통해 쓰레기 방출 제로를 실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 일환으로 2002년 임해 공업 지대에 '카와사키 제로 이미션 공업 단지'가 완공됐다. 단지에 입주한 각 공장들은 한 공장에서 배출된 것을 다른 공장에서 유효하게 재활용하는 순환형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로 재활용 쓰레기를 리사이클하는 공장들도 입주해 있다.

민 · 관 · 기업의 협동으로 추진되는 카본 챌린지 카와사키 (C.C. 카와사키)

카와사키 시 환경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구 온난화 방지 시책이다. 카와사키 시는 1998년에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행동 계획'을, 2000년에는 '지구 온난화 대책 지역 추진 계획'을 책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의 전체 역량을 동원하여 '카본 챌린지 카와사키 에코 전략(C.C. 카와사키, http://www.cckawasaki.jp/)'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C.C. 카와사키 사업 특징은 우선 시 전체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민, 기업, 학교, 행정 기관이 함께 '카와사키 온난화 대책 추진 위원회(카본 챌린지 카와사키 에코 회의, 사무국 NPO법인 액트 카와사키)'를 설립해,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주체들은 부별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부는 '에너지 절약' '솔라팀' '그린 소비자' '교통 환경' 등 테마별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1가게 1에코 운동'은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팀을 만들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게들을 직접 방문하여 히얼링 조사를 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둘째로 환경과 경제의 조화와 호순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찍부터 카와사키 공단에서 축적해 온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CO_2 삭감 카와사키 기준이라는 시의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해 개발한 제품을 카와사키의 저탄소 브랜드화해 간다. 2008년 설립된 '환경 기술 정보 센터'는 카와사키 시의 환경 기술에 관한 정보를 수집 · 공개하고, 시민 · 기업 · 대학이 합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창조 제품 개발 사례를 널리 모집해 수상하는 '카와사키 환경 쇼윈도우 모델 사업'은 환경 기술을 공유하고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 매년 '카와사키 국제 환경 기술전'을 개최하여 카와사키의 첨단 환경 기술을 해외에 소개하고, 기업들에게 비지니스 매칭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하네다 공항이 마주 보이는 임해 공업 지구에 킹(Kawasaki Innovation Gateway) 스카이 프론트를 건설해 첨단 환경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연구 기관을 유치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해외 비즈니스 지원 센터를 만들어 이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고 있다.

카와사키 시가 자랑하는 첨단 환경 시설





2012년 환경 쇼윈도우 대상작 센슈 대학의 절전 시스템
공조 설비 허가 운전 방식 및 환기 제어 시스템 구축으로 전기 사용량 삭감



시민 펀드로 만든 태양광 발전소
카와사키 시민 펀드로 국제 교류 센터 옥상에 설치한 오히사마 태양광 발전소



카와사키 에코타운
6개의 각종 폐기물 리사이클 시설과 각 기업 간의 배출물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배출물 제로를 실현하고 있는 제로 이미션 공업 단지가 들어서 있다.



카와사키 화력발전소의 스팀네트
발전에 사용했던 증기가 605Km의 배관을 통해 주변 10개 기업 공장에 공업용 에너지로 공급된다.



마이크로 수력 발전
사기누마 배수지 수도관에 소형 수력 발전기를 설치해 발전하는 마이크로 수력 발전소. 최대출력90kW.



카와사키 바이오매스 발전소
일본 최대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목재 쓰레기와 간벌재, 시내 식품 공장의 콩찌꺼기를 연료로 사용해 연간 3만 8천 가구 분의 전기를 생산한다.



우키시마 태양광 발전소
카와사키시와 도쿄 전력이 공동으로 2011년 운전을 개시해 연간 2100가구분의 전력을 생산한다.



오기시마 태양광 발전소
역시 카와사키시와 도쿄 전력의 공동 사업으로 2011년운전 개시 했다. 3800가구분의 발전량.



환경 배려형 하수 처리 시설 이리에자키 하수 처리 센터
환경개선, 에너지 활용, 자원순환을 테마로 재단장한 하수 처리장. 처리 시 수로의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으로 연간 10만kW의 전력을 생산해 시설 내의 전력으로 사용.



카와사키 에코 생활 미래관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와 쓰레기 등의 자원 리사이클을 중심으로 최첨단 환경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체험형 시설.

··· 시 사 점 ···

- 환경과 경제라는 서로 대립되는 요소를 양립시키는 정책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과 환경 첨단 기술의 산업화로 지역 경제 발전을 함께 도모해 가고 있다.
- 공해 극복 과정에서 쌓아 온 기술력으로 환경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카와사키의 브랜드로 만들어 카와사키 시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 시민, 기업, 행정이 공동으로 환경 정책 추진 주체인 CC카와사키를 구성해 환경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환경 실천과 경제적 이해 관계, 주민과 산업계의 갈등을 방지하고, 기업을 친환경 정책에 적극 참여시켰다.

3. 지역 복지 증진과 연계시킨 카와사키 시 지역 고용 창조 사업

카와사키 시는 새로운 지역 고용 창출을 위해 2009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패키지 사업'과 'J 프로젝트 사업'을 후생 노동부의 조성 사업으로 실시했다.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나, 3K(저임금, 고강도, 불결)직종이라는 인식 때문에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 한편, 2008년 발생한 리먼쇼크와 급격한 엔화 절감으로 기업의 생산 거점이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청년 실업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 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고용이 줄어든 제조업 분야에서 인재 부족을 겪고 있는 개호 복지 산업 분야로 고용을 이동시킴으로써 지역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었다.



카와사키 시 지역 고용 창조사업의 현장을 찾아 – 노인 복지 시설 크로스 하트

카와사키 기준의 산업 인재 육성 사업

카와사키 시는 2009년부터 카와사키 시 상공 회의소가 대표가 되어, 시내 제조 기업과 복지 시설, 지원 기관, 시 노동고용부가 함께 지역 고용 창조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카와사키 기준의 산업 인재 육성 사업(이하 패키지 사업이라 칭함)'을 2년간 실시했다. 이는 카와사키가 집적해온 제조 기술 기반을 이용해 복지기구 개발과 제조라는 신산업을 창출하고, 부족한 개호 인재를 육성해 지역 복지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고용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서 카와사키 기준이라 함은 사용자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 데 최적한 수준으로 카와사키 시가 독자적으로 책정한 복지 제품의 기준을 말한다.

이를 위해 ①기업들의 복지 기구 제조, 복지 서비스 등 복지 산업으로 진출을 촉진하는 세미나와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복지 용구 개발에 필요한 지원(시내 복지 시설과 연계해 복지 기구의 니즈 조사 및 개발된 복지 기구 시제품의 사용 평가 등)을 하고, ②지역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복지 기구 개발에 필요한 IT기술 등의 학습, 개호 서비스 훈련, 복지 서비스와 복지 제품 개발 메니지먼트 양성을 위한 학습 등의 코스를 개설하여 직업 훈련을 실시해 관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③ 취업 상담과 합동 취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훈련 받은 인재들이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 갔다.

협의회는 이 사업을 통해 2년간 84개 복지 관련 제품이 카와사키 기준의 인정을 받았고, 875명의 새로운 고용을 이루는 성과를 얻었다.

J프로젝트 사업

1기 패키지 사업의 성과를 이어 2013년 3월까지 2년간 J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했다. 패키지 사업이 구직자들에게 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 매칭시켜 주는 직접적인 고용 지원 활동이 중심이었음에 비해, J프로젝트는 복지 현장의 니즈를 파악해 기업의 복지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개발된 제품과 시스템을 실제 복지 현장에서 사용해 모니터링하며 관련 정보를 널리 공개해 복지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복지 관련 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간접적인 고용 지원 사업인 셈이다.

이렇게 복지기구 제조 기업과 복지 시설을 연계해 전화용 음성 집음기, 이동 보조 바, 보행차, 개호용 변기 센서 등 첨단적인 복지 기구들을 개발하고 이를 실용화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J프로젝트 사업은 기간이 만료됐으나 관련자들은 NPO를 구성하여 지금도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 성과와 과제 및 시사점 …

4년간 9백여 명의 직접적인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인재가 부족한 개호 복지 업계에 인재를 공급했으며, 개호 헬퍼들의 이직률을 내려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확립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반면 제조 관련 분야의 회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연수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단기간 연수로 배운 지식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레벨 사이에 간극이 나타났다는 점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에 카와사키가 후생노동부의 보조 사업으로 실시한 지역 고용 창출 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 지역 고용 창출 사업을 지역의 첨단 복지 기구 제조 산업 촉진 및 복지 서비스 확대와 연계해서 실시한 것은 다양한 제조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가진 카와사키만의 지역적 특징을 살린 것이다. 동시에 노인 복지 수요 확대라는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 후생 노동부의 보조금 자원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이후에 NPO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업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띤 사업으로 전환해 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4.시민 활동의 산실 카나가와 현민 활동 서포트 센터

카나가와 현민 활동 서포트 센터를 찾아서

목민관 클럽과 함께 카나가와 현민 활동 서포트 센터(소장 시모모토 쇼고, 下元省吾)를 오랜만에 다



카나가와 현민 활동 서포트 센타 앞에서

시 찾았다. 센터 빌딩 현관에 들어서니 상품 판매 코너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토모시비(등불이란 뜻) 상품 코너로, 현내 소규모 작업장들에서 만든 것들을 진열 판매하고 있다. 소규모 작업장이란 일반 취업이 힘든 중도 장애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생활을 가능케 하고자 만든 작업장으로 현재 카나가와 현에만 약 5백 개의 작업장이 있다고 한다. 토모시비는 이들 작업장들의 상품 판로와 제품 수주를 개척해주고 있는 'NPO법인 카나가와 현 장애자 지역 작업소 연락 협의회 (www.syousakuren.jp)'가 운영하는 점포들 중의 하나다.

NPO는 공존하는 지역 사회 실현의 중요한 파트너!

시모모토 소장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도무지 공무원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친근한 매너로 센터를 안내해줬다. "현민 활동 서포트 센터는 현민의 자주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 공헌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제 NPO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역 문제와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시민의 자주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곧 지역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예로부터 카나가와 현은 노동운동, 민족운동, 인권 문제 등 시민 운동이 활발했던 곳으로, 근래에도 고령자와 육아 문제, 환경 및 공해 문제, 외국인 노동자 가족 문제, 노숙자 문제, 평화 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과제를 내걸고 많은 시민 단체(NPO등)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물론 때로는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 활동을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것은 아니었다.

1995년 한신대지진 발생과 시민 활동 거점 시설 정비

시민 활동을 백안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일신시킨 것은 1995년 1월 새벽에 발생해서 5천5백 명의 인명 피해와 20만 가옥의 파괴 등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가져 왔던 한신대지진이었다. 당시, 무너진 콘크리트 밑에 깔려 있는 재해자들을 구조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생활을 복구하는 데 먼저 앞장섰던 것은 공공 조직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시민 볼런티어들이었다. 한신대지진은 일본 사회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공고하다고 믿었던 행정 체계의 한계와 더블어 시민 활동의 위력을 새롭게 인식시킨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 해를 '볼런티어 원년'이라고 부른다.

이런 사회적 요구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인 곳이 카나가와 현이었다. 현은 한신대지진이 발생한 그 해부터 시민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점 시설을 설치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그 기능과 사업 내용, 설비 등에 대해 시민과 협의하면서 조례를 제정, 다음 해인 1996년 서포트 센터를 설립했다. 일본에서는 처음 만들어진 서포트 센터며, 이후 설립된 전국의 시민 활동 서포트 센터의 모델이 되었다.

서포트 센터는 NPO의 공동 사무실이며 작업실!

서포트 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관내 NPO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사실 비영리 단체이자 민간 단체인 NPO들이 사무실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NPO들의 공동 사무실로 사용되는 곳이 9층과 10층의 '볼런티어 살롱'이다.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회의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화이트 보드와 전기 코드까지 갖춘 미팅 테이블, 컴퓨터 작업 코너, 비품 관리를 위한 로커, 홍보물이나 자료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작업 코너, 우편물과 팩스를 받아주는 각 단체별 우편함까지 갖쳐줘 있다.



카나가와 현민 활동 서포트 센타 앞에서

또한 센터 6층과 7층에 크고(42명 규모) 작은(12명 규모) 미팅룸이 16개, 3, 4층과 15층에 12명에서 90명 규모의 회의실이 16개, 3백 석 규모의 행사가 가능한 2층 홀과 1층 전시실까지 갖추고 있어, 단체들이 회의나 교육 그리고 각종 이벤트와 행사를 개최할 때 이용하고 있다. 각 미팅룸과 회의실에는 마이크, 오디오, 비디오, 프로젝터, 슬라이드 등 관련 설비 등도 충실하게 갖춰져 있다.
덕분에 작년(2012년) 서포트 센터에 등록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단체 수는 약 2천4백 개, 미팅룸 등의 시설 이용자 수가 약 40만 명, 하루 평균 1천 명이었다. 설립 당시보다 약 2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에게 애용되는 비결을 시모모토 소장은 이렇게 말한다.
"요코하마역에서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센터가 현 내 NPO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앙케이트 조사지를 비치해 놓고 항상 이용자들의 의견과 니즈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NPO의 정보 제공자이자 홍보 대행자!

센터의 그 다음 중요한 기능은 NPO들의 부족한 정보 수집력과 홍보력을 보강해 주는 것이다. 센터 내에 도서 코너와 정보 코너를 설치해 각 기관의 조성금 정보와 시민 활동 관련 정책 정보 등을 NPO들에게 일상적으로 제공해 주고, 각 단체들에서 시행하는 이벤트나 활동, 볼런티어 모집 등 정보를 시민들에게 홍보해 준다. 전시대에는 각 단체의 정보지와 이벤트 홍보물이 일목 요연하게 정리돼 있고, 서고에는 NPO 활동과 관련한 서적이 약 1천 권 정도 꽂혀 있다.
또한 활동 관련 정보와 NPO들의 활동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온. 오프라인 매체도 직접 제작하고 있다. 월간 정보지 〈Junction〉을 발행하고, NPO 정보 사이트 '카나 파이오 스테이션 (kanagawa.genki365.net)'과, 캠페인 사이트 '카나챠리 (kanachari.jp)' 를 운영하면서, NPO-NPO간, NPO-시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상담 코너

9층 접수 창구 옆의 상담 코너로 갔다. 마침 한 남성이 두 명의 어드바이저와 상담을 하고 있다. 그는 회사에서 사회 공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파트너가 돼 줄 NPO를 찾고 있다고 한다. 상담하는 어드바이저는 '소셜 코디네이트 카나가와 (http://socokana.jp/)'라는 민간 단체에서 파견한 사람들이다. 전문성을 위해 센터의 상담 업무는 관련 단체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이 기업에 적합한 CSR활동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적합한 NPO를 찾아 소개해 주기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2011년 센터의 어드바이저 상담 내용을 보면 '볼런티어 활동을 하고 싶다'가 217건으로 가장 많고, '볼런티어를 구하고 싶다'가 144건, 'NPO법인화에 관한 상담'이 85건, '단체 운영과 활동'이 80건, 그리고 단체의 자금 및 회계 처리, 세무 등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NPO 운영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에 대응하기 위해 NPO 법인화, 재무, 회계, 홍보, 관리 등 특별 상담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들 상담을 포함해 재작년에는 총 709건, 하루 평균 2.8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그 중 50건은 코디네이트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100억 엔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볼런터리 활동 추진 기금21'

최근 각지의 서포트 센터는 대체로 NPO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2001년에 만든 '카나가와 볼런터리 활동 추진 기금21'은 그 자금 규모가 여타의 커뮤니티 펀드보다 현저하게 크다. 더욱이 기금이 시민들의 기부금이 아니라 100% 현의 출자로 이뤄졌다는 사실은 의외였다. 기금 21은 오카자키 전 지사가 '협동의 시대-행정과 시민 섹터의 협동에 의한 지역 사회 만들기'를 제창하면서, 시민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현 발행채를 이용하여 1백억 엔(약 1천100억 원) 기금을 출자해 만든 것으로, 매년 그 이자 1억 엔(약 11억 원)을 시민 단체들에게 지원한다.

당시 카나가와 현은 재정 파탄 직전이었으며, 재무 관료 출신의 오카자키 전 지사는 현 재정의 건전화와 정상화를 내걸고 당선된 사람으로, 세비 지출은 최대한 삭감하면서도 시민 활동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았던 그의 통찰력이 놀랍다.

설립부터 현재까지 31개 단체가 협동 사업 부담금(현과 공익 활동을 협동으로 추진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1천만 엔의 조성금을 최장 5년까지 지원하는 기금)을 지원받았으며, 44개 단체가 볼런터리 활동 보조금(사회 혁신을 위해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을 대상으로 연 2백만 엔의 보조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기금)을, 그리고 61개 단체가 볼런터리 활동 장려금(우수 활동 단체에 대한 표창으로 100만 엔의 상금을 지원하는 기금)을 지원받았다. (볼런터리 활동 추진 기금21, 홈페이지 http://www.pref.kanagawa.jp/cnt/f5258/)

커뮤니티 컬리지-미래를 여는 도전자를 양성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올라가니 '카나가와 커뮤니티 컬리지 강의실' 이라고 적힌 룸이 두 개 있다. 서포트 센터가 NPO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 21 다음으로 준비한 것이 바로 '카나가와 커뮤니티 컬리지 (http://www.pref.kanagawa.jp/cnt/f100303/)'다. NPO일꾼들과 시민들이 지역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이다. 공간-자금-인재 양성을 통한

NPO지원을 순차적으로 완성해 가고 있는 셈이다.
2006년부터 3년간 시민 활동에 필요한 강좌를 실험적으로 운영해 200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커뮤니티 컬리지는 3년간 189개 강좌를 개설해 총 5천291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이들 배움의 장은 지금부터 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이 지역 활동에 참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미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회가 되고 있다.

시민 활동은 지역 문제 해결의 동반자!

현재 일본 광역 자치 단체, 기초 자치 단체들의 시민 활동 서포트 센터는 민간 중간 지원 센터를 포함하여 약 330여 개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이 카나가와 현민 활동 서포트 센터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센터의 지원 프로그램은 곧바로 다른 서포트 센터로 확산돼 가고 있다. 이처럼 관설 관영인 센터가 선진적인 모델을 만들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시찰 내내 생각해 봤다. 그건 'NPO가 현 정부의 동반자!' 라는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인 것 같다. 즉, 시민의 힘, 그들이 결집한 시민단체가, 지역과 사회 문제해결의 새로운 담당자라는 믿음이다.
지난 20년간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카나가와 서포트 센터가 앞으로 20년 뒤에도 선진적인 센터로 남기 위해서 지금 새롭게 모색하고 있는 것이 있다. 지역만들기를 추진하려면 시민 사회와 강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 NPO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고 한다. 중간 지원 조직이 제반 시민 단체와 현 행정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 시 사 점 …

- 카나가와 현이 지역만들기에 있어 시민단체와 파트너십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 특히 특정 당파나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평하고 호혜적인 룰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했다고 한다.
- 센터는 재정적인 안정성 확보라는 관영 관립의 장점을 살리고, 자칫 빠지기 쉬운 단점인 행정주의를 NPO와 네트워크 강화로 극복하면서, NPO 중간 지원 조직의 선진적인 모델을 만들어 왔다.
- 센터는 공간–활동–기금–인재 양성–네트워크 강화의 순으로 NPO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완성해 왔다.

5. 오가와마치, 유기재배와 자연에너지로 30세기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연수 3일째는 도쿄 북쪽 사이타마현으로 갔다. 먼저 주민 주체로 유기 재배와 자연에너지를 기반으

로 3백 년 지속가능한 자립형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오가와마치(小川町)를 방문해서 각종 자연에너지 시설을 갖춘 유기 재배의 시모사토(霜里)농장, 오가와마치의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거점 베리카페, 그리고 주민과 관청이 협동으로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둘러봤다. 36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야외 시찰을 한 탓에 모두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오후에는 주민 주체로 역사적 건조물로 이뤄진 경관을 보존하면서 쇠퇴해 가던 상점가를 전국적인 관광지로 재생시킨 크라즈크리(蔵造り)상점가를 방문하고자 카와고에 시(川越市)로 향했다.

오가와마치(小川町)는 도쿄에서 전철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인구 3만 5천 명의 작은 마을이다.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에도시대부터 전통 화지, 비단, 일본주 등 특산품을 에도성에 독점적으로 공급해 온 역사와 전통을 소유한 지역이다. 특히 1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가와 화지(小川和紙)는 전국적으로 유명해 오랫동안 '화지의 고향'으로 불려오기도 했다. 손으로 뜨는 오가와 화지 제조 기술은 지금까지 그 명맥이 이어져 국가의 주요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원래 신라의 삼국 통일과 함께 멸망한 고구려인들이 도주해 이 지역에 고려 마을을 형성해 살면서, 엄혹한 추위와 차가운 산수를 이용해 종이를 제조하기 시작한 것이 오가와 화지의 시초였다고 한다.
근래에 들어 오가와마치는 '유기 농업의 고장'이라는 새로운 명성을 얻고 있다. 1970년 유기 재배라는 말도 커뮤니티비즈니스라는 말도 아직 낯설었던 시대에, 이곳에서 유기 재배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당시 22살의 카네코 요시노리(金子美登)씨. 낙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농업을 잇기 위해 농업 고등 학교를 졸업한 카네코 씨는 농수산부가 개최하는 '농업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무농약, 무화학 비료로 쌀과 야채를 재배하여 지역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농업의 형태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따이이따이병, 미나마타병등 공해병이 다발하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급부상하기



오가와마치 시모사토 농장에서

시작한 시대적 배경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농업

농업학교를 졸업한 카네코 씨는 고향으로 돌아와 바로 시모사토(霜里) 농장을 시작하면서 그 구상을 구체화시켜 갔다. 고립 무원의 고독한 싸움이었다. 유기 재배의 기술도 인식도 아직 확립돼 있지 않던 시대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법칙과 선조의 지혜를 하나 하나 실험하면서 쌀과 야채를 재배했다. 정성들여 재배한 야채는 그 어느 일등품보다 맛있었지만, 모양과 크기가 불규칙했다. 시장에 출하하는 것은 애초에 포기하고 유기 재배를 이해해주는 소비자를 직접 찾아 나섰다. 사전에 계약을 맺고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전달해 줄 가정을 찾았지만 유기 재배에 대한 인식이 미미했던 시대라 그 또한 쉽지는 않았다.
1975년 어렵게 10세대의 제휴 가정을 찾으면서 유기 농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계절에 맞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면서, 소와 닭, 오리 등도 함께 사육하는 시모사토 농장에서는 모든 것이 순환된다. 밭에서 수확한 야채는 사람들에게 소비되고, 논밭의 시래기와 음식물 쓰레기, 잡초는 밭에서 키우는 가축의 먹이가 되며, 가축의 분뇨와 산에서 모은 낙엽은 퇴비가 되어 토양의 양분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 다이옥신이나 환경 호르몬 등의 유해 물질은 도저히 끼어들 수 없는 자연적 순환이다.

시모사토 농장의 순환은 에네지 자급으로 완성된다. 그는 석유와 천연가스와 달리 고갈되지 않는 자연 에너지를 농업에 살리는 것에 매우 관심을 갖고 실험해 왔다. 태양광 전지를 손수 제작해, 물 뿌리는 펌프와 농장에 방목하는 오리의 울타리로 사용하고 있다. 농장에 소규모 바이오가스 플란트를 만들어, 농장에서 수거한 가축의 분뇨와 음식물 찌꺼기 등을 투입한다. 발생한 매탄가스는 열탕용 연료로 사용하고 액체 비료는 야채 재배에 이용하고 있다. 또 지역 음식점이나 두부 공장 등에서 수거해 온 폐식용유로 얻은 SVO (Straight Vegetable Oil)는 트랙터와 승용차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수확한 농산물은 모두 계약 가정과 기업에 직접 공급한다. 약 30세대에 쌀과 콩, 밀가루 등 곡물류부터 각종 계절성 야채, 계란, 우유로 패키지를 만들어 주1회 직접 전달해 주고 있다. 배달하면서 종종 차와 가벼운 식사를 얻어 먹으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유기 농업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유기적인 인간 관계를 낳기도 한다.

카네코 농법의 유기 재배가 지역의 새로운 브랜드가 되다

카네코 씨는 자신의 농장을 운영하는 한편 유기 농업의 보급에도 전력을 기울여 왔다. 1979년부터

후계자 양성을 위해 1~2년 코스로, 매년 4~10명까지 취농 연수생들을 받아 카네코식 유기 농법을 가르친다. 단기 연수생을 포함하면 그가 가르친 취농자가 벌써 120명을 훌쩍 넘어선다. 일본은 물론 덴마크 등 해외에서도 찾아오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도 2명의 연수생이 찾아와 카네코식 유기 농업을 익히고 있다.

연수를 마치고 오가와마치에서 독립해 유기 농장을 시작한 생산자도 늘어, 1994년에는 임의 단체인 '오가와마치 유기 농업 생산자 그룹'이 결성돼 자연에 부담을 주지않는 순환형 농업을 함께 개척해 가고 있다. 각 농장들은 각자의 제휴 가정과 계약을 맺고 유기 재배를 하지만, 일부는 공동 출하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에서도, 유기 농업으로 전환하는 일반 농가가 늘어나면서, 2004년에는 지역 차원에서 밭농사-밀농사-콩농사의 '2년 3모작' 공동 유기 재배가 시작되었다. 2009년에는 오가와마치 의회에서 '유기 농업 추진법'이 제정돼 마을 전체가 유기 농업을 실시하게 됐다. 말 그대로 오가와마치는 '유기 농업의 고장'이 되어, 자치단체도 함께 지역 차원에서 유기 농업을 지역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하나의 순환-유기 농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

그는 유기 농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역 산업과 연계를 꾸준히 모색해 왔다. 그래서 1988년 유기미로 빚은 '오가와의 천연주'가 지역 특산품으로 처음 탄생했다. 메이지시대부터 이 지역에서 일본 전통주를 빚어 온 양조업자가 유기 재배한 쌀로 술을 빚자고 제안해, 카네코 씨와 유기 생산자 그룹에서 특별히 주조용 현미를 재배해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지역 정미업자와 손잡고 농장의 유기밀을 이용한 수제 우동을 만들어 제품화에 성공했으며, 1994년부터는 지역의 다른 양조업자와 유기콩과 밀로 유기농 간장 브랜드를 상품화했다. 또 1999년부터는 지역 두부 공장과 함께 유기농 콩으로 만든 두부를 출하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유기 농산물을 이용한 지역 특산품이 꾸준히 개발되면서 유기 농업을 중심으로 순환은 새로운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탄생과 함께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NPO 법인 쯔바사 · 유의 유기 재배를 기반으로 한 마을만들기

이처럼 유기 재배와 지역 산업의 자생적 연계로 시작된 커뮤니티비즈니스는 2000년에 지역 주부 3명이 NPO법인 생활공방 쯔바사 · 유(翼 · 遊 대표 타카하시 유우코)를 만들어 보다 조직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쯔바사는 유기 재배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지역 만들기가 가능하려면 먼저 유기

재배 농가의 수입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유기농 제품으로 두부, 고로케, 주스 등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는 한편, 지역 기업과 유기 재배미 사전 구입 계약을 맺었다. 그 기업은 계약 농가의 쌀을 전량 구입해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나눠준다.

또 유기 재배 식품의 우수성을 주민에게 널리 소개하기 위해 유기 재배 농가 주부들이 공동 출자하고, 순번제로 일일 셰프가 되어 커뮤니티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수단도 그 카페에서 주민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맛있는 점심을 먹기도 한 것처럼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민으로부터 자원과 자금을 출자 받아 그 성과를 공유하면서, 에너지도 식량도 자급하는 고부가의 순환형 지역, 그리고 언제까지나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어 가고 싶다."

타카하시 대표가 마을만들기에 거는 포부다.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이룩한 순환형 지역 사회

오가와마치는 자연에너지 보급에도 앞장서 2001년부터 NPO 후우도 활용 센터(대표 쿠하바라 마모루, 桑原衛)가 중심이 돼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다. 플랜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매탄가스와 액체비료를 만든다. 유기 농가에서 액체 비료는 구입해 퇴비로 사용하고, 매탄가스는 연료로 사용한다. 음식물 쓰레기 회수에 참가하는 가정에는 야채 쿠폰을 제공해 지역 수확제 때 야채와 교환한다. 지역 자치단체는 쓰레기 소각 비용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소비자에게서 돌아온 음식물 찌꺼기가 자원이 되어 다시 토지로 돌아가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야채가 되어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순환형 지역 사회의 또 하나의 실현이다.

14가구의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해 시작한 오가와마치의 바이오 플랜트 사업은 현재 주민들의 꾸준한 참여로 약 1백 가구로 확대됐으며, 지자체도 적극 지원해서 지역 초등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도 회수하여 자원화시키고 있다. 후우도의 쿠하바라 대표는,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플랜트 설계부터 제조, 운영을 기업의 자금과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모두 주민의 손으로 하고 있어, 그 성과 역시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한다.

… 시 사 점 …

-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의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즈니스가 그린 투어리즘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오가와마치는 유기 재배를 기반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 외부의 자원과 기술,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이고 순환형의 지역 만들기를 지향하고 있다.

6. 역사적 경관을 살린 카와고에 시 크라즈크리 상점가의 마을만들기

역사적 건조물이 늘어서 있는 크라즈크리 상점가

사이타마 현 중앙에서 약간 남쪽에 있는 인구 약 33만 3천 명의 도시 카와고에 시는 에도시대에는 작은 에도라고 불리울 정도로 에도성(도쿄의 옛 명칭)의 북쪽 방위 거점으로, 또 물자 유통의 거점으로 번성했던 도시였다. 이곳 카와고에 시에 '크라즈크리(蔵造り)'라는 일본 전통 건조물 30채가 도로 양쪽에 나란히 서 있는 상점가(크라즈크리 상점가 혹은 카와고에 1번가라고 한다)가 있다.

외벽을 흙으로 두텁게 쌓고 검은 회칠을 한 카와고에 만의 특색있는 전통 마치야(町屋, 상점과 가옥을 겸하는 시전 거리의 가옥)가 잘 보존돼 역사의 향취가 물씬 풍기는 마을 경관을 형성해서 연간 약 6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그러나 파괴돼 가던 역사적 건조물을 지키고 마을 경관을 복원하면서 상점가가 다시 활기를 찾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치밀한 노력이 있었다.

고도 경제성장에 밀린 크라즈크리와 상점가의 쇠퇴

이 곳에 크라즈크리의 마을 경관이 형성된 것은 1983년 1천3백 호의 주택과 시가지의 3분의 1을 쓸어간 대화재가 그 계기였다. 그 때 일대가 모두 불탔으나 전통적인 크라즈크리 공법으로 지은 오사와(大沢)댁(1792년 건축, 국가 중요 문화재) 건물만이 화재 속에 남아 있었다.

당시의 상인들은 내화성이 강한 크라즈크리를 기본으로 마을을 재건했다. 그리고 개화기에 벽돌과 응회석 등 근대적 건축물도 군데 군데 들어서 크라즈크리와 함께 독특한 마을 경관을 형성하며 카와고에 1번가로 불리며 상업의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60~70년대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철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상업의 중심이



카와고에 크라즈크리 상점가의 심볼 '도키노 카네(時の鐘)'



경관 정비 전 크리즈크리 상점가의 풍경



경관 정비 후 크라즈크리 상점가의 풍경

카와고에역 주변으로 옮겨가 크라즈크리 상점가는 점차 침체돼 갔다. 상업의 쇠퇴와 함께 도시 개발의 흐름 속에서 크라즈크리도 칙칙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점차 허물어지거나 파손돼 갔다. 전성기 때 1백여 채가 넘던 크라즈크리가 30여 채로 줄어 들었고 간판과 외관의 변조로 경관 또한 심하게 파손돼 갔다.

이런 가운데 1971년 오사와(大沢)주택이 정부 중요 문화재로 지정돼, 크라즈크리가 문화재로 평가받았다. 1972년에는 구 오야마댁 건물이 팔려 빌딩으로 재건축하려고 하자 시민 중심으로 보존 운동이 전개됐다. 결과 카오고에 시가 건물을 구입해 보존, 지금 '크라즈크리 자료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1975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전통적 건조물 보존 지구 제도가 시작되면서, 건축가와 연구자들 그리고 주민 사이에 크라즈크리라는 건축물과 마을 경관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1981년 카와고에 시가 16채의 크라즈크리를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마을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크라즈크리 상점가의 마을만들기 과정

크라즈크리 상점가의 마을만들기는 '카와고에 크라회(川越蔵の会, 대표 하라 토모유키,原知之)'가 중심에 있었다. 이 단체는 1983년 주민 주체의 경관 보전과 상점가의 재생을 위해 크라즈크리 상점가의 젊은 후계자들을 중심으로 건축과 마을만들기 전문가, 관심 있는 주민, 시 공무원 등이 모여 조직했다. 임의 단체로 출발해 2002년에 NPO법인으로 등록했는데 현재 약 1백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크라회는 '카와고에 1번가 상업 협동 조합' '카와고에 1번가 경관 위원회' 그리고 카와고에시에 마을만들기와 경관 보존 활동을 적극 제안하고 협력하면서 크라즈크리 상점가의 마을만들기를 이끌어 왔다.

카와고에 크라회는 출범 당시 '크라즈크리를 보존하여 상점가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상점

가를 활성화해야 크라즈크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상점가의 활성화와 역사적 경관 보전을 유연하게 연계시켜 갔다.

먼저 1번가 상업 협동 조합에 마을만들기를 제안했다. 조합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1985년 정부의 '커뮤니티 마트 구상' 위탁을 받아 '카와고에 1번가 상점가 활성화 모델 사업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해 다음 해에 기본 구상을 책정했다. 기본 구상에는 ① '경관 위원회'를 구성해 '마을만들기 규범'을 책정하고 ②규범에 근거해 각 점포를 정비하며 ③공동시설로 포켓 파크, 전선을 지중화시키며 ④사람들이 모이는 중핵 시설로 마을 축제 회관을 건설한다는 등의 내용이 제안됐다.

그리하여 1987년 '카와고에 1번가 상점가 경관 위원회'가 구성됐다. 상점가에서 8명, 자치회에서 8명, 크라회에서 5명, 전문가 4명으로 총 26명의 위원이 구성됐으며 시 공무원과 상공회의소가 옵저버로 참가한다. 위원회는 1년간 조사를 통해 67항목의 마을만들기 규범을 책정했다.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해 신축과 개축할 때, 건물의 담과 간판에 이르기까지 디자인과 건축 재료의 규범을 설정하고 있으며, 모든 경관의 변경은 지면을 위원회에 제출해 검토받고 조언을 받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행정적 규제가 아니라 시민의 자주적인 규범으로 크라즈크리의 마을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의 모든 행정적인 조치도 위원회의 논의를 존중해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1991년에는 상점가와 주변의 도로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1992년에는 상점가의 전선을 지중화시켜 크라즈크리의 매력이 돋보이는 경관으로 재정비됐다.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 관광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즈음 지구 내에 아파트 건설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주민은 경관 보전을 위해 다시 움직였고, 그 결과 1999년 문화재청의 '주요 전통 건조물군 보존 지구'로 책정을 받았다. 보조금 지원으로 마을 경관 보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으며, 도시 계획선이 폐지돼 크라즈크리의 경관 보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됐다.

크라회의 마을 만들기, 주변 지역으로 확산돼 가다.

2000년대 들어서서도 크라회는 상점주와 주민, 행정기관,전문가들을 연계시켜 가면서 주민 주체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크라즈크리 상점가는 카와고에 시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2007년에는 '아름다운 역사적 풍토 100선'에 선정됐으며, 이러한 활동이 인정받아 2010년에는 우수 마을만들기 활동 단체로 총무대신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크라즈크리 상점가의 성공은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접하는 '대정 낭만 상점가'에서도 크라회와 협동으로 역사적 경관을 살린 마을만들기가 시작됐다. 또, 건설회사에서 카와고에 직물 시장을 구입하여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자 크라회가 나서 지역 주민과 협력해 보존 운동을 전개

했다. 카와고에 시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구입해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하기로 했다. 크라회는 계절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건물주가 기부한 전통 양조장과 함께 직물 시장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시 사 점 …

- 크라회는 크라즈크리 상점가의 활성화와 역사적 건조물을 살린 경관 만들기를 유연하게 결합시키며 마을만들기를 추진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카와고에의 전통 산업을 지키는 장인들을 관광 자원으로 1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 시민 주체의 크라회는 카와고에 시와 상점주들의 협동조합, 경관 위원회에 제안하고 협동하면서 마을 만들기 활동의 중심에 서 왔다. 특히 행정 당국에 대해서는 제언과 협동뿐만 아니라 때로는 비판도 마다하지 않는 주체적인 태도를 취한다.

7. 미타카 시의 'SOHO City 미타카 구상'과 (주) 마을만들기 미타카

연수 4일째, 도쿄 시내에 있는 미타카 시로 향했다. 먼저 미타카 시가 SOHO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해 개관한 미타카 산업 플라자를 방문했다. 점심 식사 후 미타카 실버 인재 센터를 방문하여 고령자들의 고용 확보 사업과 고령자들이 건강하게 일하는 현장을 둘러봤다. 그리고 도쿄 서쪽으로 발걸음을 돌려 닛보리에 있는 고령자 시설 닛포리 커뮤니티로 향했다. 그곳에서 주방업무를 위탁받아 일하고 있는 '도쿄 워커즈 콜랙티비 협동조합의 히그라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설명을 듣기 위해서다. 시찰을 마치고 히그라시 조합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마음이 사뭇 훈훈하다.

도꾜 시부(市部)의 대표적인 베드타운 미타카 시(三鷹市)에서는 최근 12년간 약 250개 SOHO(Small Office Home Office)가 탄생해 자립했다. 대부분 혼자 창업하여 첫 해부터 흑자를 냈으며 문을 닫은 곳은 아직 없다고 한다. 1998년부터 실시한 미타카 시의 도시 발전 구상 'SOHO City 미타카 구상'의 성과다.

미타카 시는 1988년부터 10년간 320개 공장 중 80개 공장이 시외로 나갔고 3천500명이 고용을 상실했다. 결과 시내 토지의 64.4%가 저층 주거 전용 지역, 13.9%가 중고층 주거 전용 지역이 차지

하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 됐다. 더불어 생산 연령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시의 세수가 급격히 줄어든 반면, 사회 보장 비용은 급격하게 늘어갔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시는 SOHO를 육성하여 시내에 생산 인구를 유치하고 재정 기반을 안정시키며, 고환경 · 고복지의 정보 도시를 지향하고자 'SOHO City' 미타카 구상을 책정했다. 그리고 시가 2억 7250만 엔(약 30억 원)을 출자해 '주식회사 마을만들기 미타카(대표 하기와라 유키오, 萩原幸男)'를 설립하여 그 사업을 담당하게 했다.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미타카는 행정의 공공성과 공평성에 민간의 유연성과 스피드를 더해, 미타카 지역 자원을 베이스로 시민 · 대학 · 기업과 연계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SOHO 육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식회사 마을만들기 미타카의 SOHO 지원 사업

마을만들기 미타카는 시내 SOHO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1) SOHO 인큐베이션 시설의 정비와 운영

미타카 시 SOHO 파일롯트 오피스(역 앞 복합 빌딩의 공실을 개조한 것으로, 현재 21개 회사가 입주), 미타카 산업플라자(SOHO 육성의 거점으로 신축, 현재 26개 회사가 입주), 미타카 산릿츠 SOHO센터(시내 사업가가 SOHO 육성을 위해 기부한 공장과 종업원 기숙사를 개조해 만든 시설로 현재 18개 회사가 입주) 등, 8개의 SOHO 인큐베이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사무실과 아파트 등의 공실을 SOHO에 적합한 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각 센터에는 총 133개의 스몰 오피스가 있으며, 소호 간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살롱 공간, 각 고객 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 미팅 코너, 렌탈 부스 등이 마련돼 있고, 접수 창구에서는 접수, 전화 등 업무를 대행해 준다. 또한 최근에는 스페이스를 공유하면서 독립된 일을 할 수 있는 Co-



미타카 산업 플라자의 스몰 오피스



미타카 산업 플라자의 소호 살롱

Working 카페도 만들었다.

(2) 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마을만들기 미타카는 대학과 기업 등에서 160여 명의 단체와 개인이 참가한 'SOHO city 미타카 추진 협의회'가 구성돼 있다. 협의회의 전문가들과 사업의 선배들은 SOHO 사업자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조언자가 돼 주고 있다. 미타카 산업 플라자 2층에는 SOHO 사업자를 위한 상담 코너가 있어 이들 전문가들이 창업과 경영, 회계, 세무, 법률, 특허 등 상담과 SOHO 간 비지니스 매칭 등 코디네이터 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신용 금고와 제휴해 자금이 필요한 SOHO 사업자들에게 무담보 융자 등의 자금도 알선해 준다.

(3) SOHO 벤쳐 칼리지 개설

보통 SOHO 오피스 입주자를 모집하면 응모자는 3~5배에 이른다. 그 경쟁을 뚫고 사업계획 심사에 합격해 입주하는 사람들은 실현성이 높은 사업 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입주자들은 흑자을 내면서 순조롭게 발전한다. 그러나 사업 계획의 실현성이 낮아 입주 심사에 떨어진 사업자들은 독자적으로 창업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실패를 줄이기 위해 2002년 창업 강좌 'SOHO벤쳐 컬리지'를 개시했다고 한다.

(4) 비즈니스 컨테스트 개최

새로운 SOHO 사업자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매년 '미타카 비즈니스 컨테스트'를 개최한다. 비즈니스 플랜의 발표 기회를 제공하며 수상자들은 30만 엔의 상금과 함께 1년간 SOHO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각 기관으로부터 비즈니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프레스 발표로 홍보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기업과 관공서 등의 교류회에 참가할 수 있다. 발표회를 통해 사업 파트너를 얻는 행운을 잡기도 한다.

(5) SOHO 페스티벌 개최

매년 미타카 SOHO의 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전시 소개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발표할 수 있는 'SOHO 페스티벌 in 미타카'도 사업자들에게는 좋은 기회다. 페스티벌에 부스를 설치해 참가하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홍보하고 손님의 반응을 체크할 수 있으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 네트워크, 거래처 등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주)마을만들기 미타카의 SOHO 지원 사업의 성과

(주)마을만들기 미타카의 오오타카 토시히코(大高俊彦) 총괄 매니저는 "여기를 거쳐간 SOHO 중 문을 닫은 곳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 보지 못했다. 그것이 우리 사업의 성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지 않겠는가?"라며 사업의 성과를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실제로 2007년 시내 8개 SOHO 사무실에 이주해 있는 115개 사를 히어링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터뷰 조사에 응한 67개 사의 평균 매상은 5천365만 엔, 71개 사의 평균 고용수는 6.7명(상근5.4명, 비상근1.3명)으로 477명의 고용 효과를 가져 왔으며, 신문 잡지 등에 251편의 기사가 게재돼 약 4억 8천만 엔의 홍보 효과를 올렸다. 또한 SOHO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커뮤니티비즈니스가 탄생하기도 했다.

그 사업의 성과와 함께 (주)마을만들기 미타카도 창업 이후 11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한다. 2012년 매상은 약 10억 5천만 엔, 순익은 약 3천4백만 엔이다. 현재 47명의 직원이 (주)마을만들기 미타카에서 SOHO 육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다시 미타카 시의 마을 만들기와 SOHO 사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재투자하고 있다. 그 한 예가 프로그래밍 언어 Ruby의 개발이다. 또 공공 업무 시스템을 지역 IT 사업자들과 협동으로 개발하여 소스 코드를 개시해서 다시 지역 내 IT 사업가들에게 사업을 순환시키는 것도 주요한 사업이다.

… 시 사 점 …

- 도 내의 베드타운, 인구의 노령화, 산업의 동공화, 상업 중심지의 부재라는 지역의 한계를 SOHO 육성이라는 지역 발전 정책으로 극복하고 있다.
- SOHO 육성 지원 주체로 기존의 제3섹터 방식과는 다른 주식회사로 마을만들기 미타카를 설립해 사업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8. 지역 시니어들의 제2 인생을 설계하는 미타카 실버 인재 센터

미타카 실버 인재 센터 로비에서 10여 명의 고령자들이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으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1층 안쪽의 후쓰마(장지를 바른 일본 전통적인 미닫이문) 작업실에서는 한 분이 남아 오후 작업 준비를 하는 듯하다. 회원 경력 20년이 넘은 베테랑이자 후쓰마팀의 팀장이다. 그는 83세 나이가 믿

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 보인다.

2층 학습실은 마침 여름 방학이라 수업이 없어 모두 비어 있다. 평소에는 여기서 지역의 고령자들이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에게 영어 등 공부를 가르친다고 한다. 또한 성인 생애 학습 강좌와 컴퓨터 강좌도 개최하고 있다. 학습실 옆의 컴퓨터 작업실을 들여다 보니 4~5명의 고령자들이 컴퓨터 앞에서 영상 편집 작업을 하고 있다. 시민 방송 'NPO법인 무사시노 미타카 시민 TV'의 멤버로 지역 케이블 TV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다고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 재단 법인 미타카 실버 인재 센터(회장 바베 마모루,馬場護)는 지역 고령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직이다. 원래 실버 인재 센터는 '고령자 등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조직으로, 정부와 도쿄 시의 원조를 받아 운영된다. 시정촌(市町村)의 기초 자치 단체별로 조직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데, 현재 전국의 약 1천300개 기초 자치 단체에 조직돼 있다. 사회 참가 의욕을 가진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취업 또는 사회 봉사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즉, 센터가 지역 주민, 공공 단체, 기업 등에서 일을 수주받아 등록한 회원들에게 일을 의뢰하고 그 양에 따라 각자 수입을 배분한다.

1976년에 조직된 미타카 실버 인재 센터에는 현재 1천594명의 남녀 회원들이 가입해 있는데, 지역의 60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약 3.4%에 해당하는 숫자다. 회원들의 평균 연령은 72세로 현역 활동자 중 최고령자는 94세라고 한다. 작업의 내용은 공공 주차장, 주륜장의 관리, 각 가정의 도배, 미장, 정원 관리, 건물 관리, 시보 등의 배포, 개호, 가사 보조 등의 기능직부터 일반 사무, 공공 시설의 관리, 컴퓨터 입력, 필사, 비디오 촬영, 중고생의 학습 강좌와 성인 생애 학습 강좌의 강사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대단히 넓어, 회원들의 다양한 희망과 경력에 맞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2012년 수주 계약 건수는 1만 584건, 계약 수주 금액은 약 5억 9천만 엔이라고 한다.

회원들이 실버 인재 센터의 문을 두드린 이유는 백인 백색으로 실로 다양하다. 이노우에 요시오(井上義男,73세,2000년 가입)씨. 전정 등 정원 관리팀의 팀장으로 30명의 팀원을 인솔하고 있다. 현역 시절부터 취미였던 원예 작업에 매력을 느껴 실버 센터에 가입했다는 그는 베테랑이 된 지금도 시간이 있으면 원예 관련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실버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히노하라 타에코(日野原 妙子,68세)씨. "40여 년간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정년 퇴직을 하면 취미를 즐기면서 한가하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2년쯤 쉬고 나니까 생활이 늘어져 다시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라는 그녀는 지금 노인 홈의 청소일을 하고 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빨리 흘러서 생활에 활기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센터 일 뿐만 아니라



미타카 실버 인재 센터에서



매년 미타카역 광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실버 인재 센터전

지역 볼런티어 활동에도 열심이다. 센터에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관리와 지역 케이블 TV프로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우메사와 노리마사(梅澤憲正)씨. 그는 퇴임 후 2004년에 태어나 살던 곳을 떠나 아무 연고가 없는 미타카 시로 이사했다. 그리고 즉시 센터에 가입했는데, 지역 참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일을 가릴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마침 영상 제작을 하게 되어서 현역 시절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게 행운이었다고 말하는 그는 일을 통해서 이웃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한다. 이처럼 센터는 고령자들이 일을 통해 삶의 보람을 얻고 지역 활동에 참가하는 중요한 터전이다.

센터는 고령자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한편, 신년회, 연수 여행 등 회원 상호 간 교류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볼런티어 활동을 알선하는 등 회원들의 지역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바베 센

터 회장은 “실버 인재 센터는 지역 고령자들에게 보람있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열어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고 강조한다.

… 시 사 점 …

- 실버 인재 센터는 정부가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공익 사업으로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 실버 인재 센터의 사업은 취업의 알선에 그치지 않고, 자칫 고립되기 쉬운 고령자들의 지역 참가와 교류 기회를 만들어 보람 있는 노후 생활을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9. 도쿄 워커즈 콜랙티브 협동조합의 히그라시 사업장을 찾아서

도쿄의 아라카와 구 닛뽀리에 있는 유료 민간 노인 홈 ‘닛뽀리 커뮤니티 하우스’ 주방에서는 빨간 앞치마와 두건을 한 16명의 히그라시 조합원이 입주자들의 식사를 만든다. 워커즈 콜랙티브 히그라시(대표 호사카 히로코, 保坂弘子)조합원들이다.

히그라시는 살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기능과 서비스를 사업화해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공동으로 일하는 노동자 협동조합 조직으로 도쿄 워커즈 콜랙티브 협동조합의 회원 조합이다. 지역 사회 공헌이 그 목적으로 영리를 위해 사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2003년 10명의 생활 클럽 생협의 주부 조합원이 모여, 1인당 10만 엔씩 출자하여 설립했다. 현재는 16명 조합원이 각자 사정에 맞춰 시간을 정해 일하고 있으며, 노인 홈의 주방업무 외에 지역 보육원의 간식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히그라시를 만든 계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호사카 대표는 “육아에 전념하고 있을 때,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안전한 식품을 먹이고 싶어 생활 클럽 생협에 가입했죠. 10년 정도 지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생협에서 닛뽀리 커뮤니티 하우스의 주방 업무를 위탁받아 워커즈 콜랙티브로 실현해 보지 않겠냐고 적극 권유해 워커즈 콜랙티브 운동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고 답한다. 그녀는 히그라시를 이끌면서 2005년부터 도쿄 워커즈 콜랙티브 협동조합의 이사, 2010년부터 이사장직을 함께 맡고 있다.

워커즈 콜랙티브 혹은 워커즈 코프라고 불리우는 노동자 협동조합이 일본에 등장한 것은 1970년



도쿄 워커즈 콜랙티브 협동 조합
히그라시 사업장을 찾아서

대 들어와서다. 협동조합 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의 양 사이드에서 조직돼 지역 고용 창출과 지역 문제 해결에 공헌해 온 바가 크다. 노동자 협동조합에 먼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노동조합 운동이다. 1971년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효고 현 니시노미야 시에서 '고령자 사업단'을 조직한 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중장년층의 실업자를 중심으로 조직되기 시작했으며, 1986년에는 이들 단위 조합을 조직적으로 개편해 '일본 노동자 협동조합 연합회'가 결성됐다. 현재 전국 250개 단위 조합에 4만 7천503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228억 5천400만 엔(약 2천300억 원)의 총 매상 실적을 올리고 있다(2008년 현재).

1980년대 들어서면서 협동조합 운동에서도 워커즈 콜랙티브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생협 중 하나인 '생활 클럽 생협'은 1980년 ICA(국제 협동조합 연맹) 대회의 레이드로 보고서의 영향을 받아, '협동조합에 의한 지역 만들기'를 방침으로 세우고 지역별로 워커즈 콜랙티브 설립을 권장했다. 이후1982년 카나가와에서 '워커즈 닌징(당근)'이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도쿄, 사이타마, 치바 등지에서 단위 조합과 지역 조직이 연이어 설립됐다. 그리고 1995년에는 이들 지역 조직을 기반으로 전국 조직 '워커즈 콜랙티브 네트워크 재팬'이 결성됐다. 현재 전국 530개 워커즈 콜랙티브에 1만 6천990명의 조합원이 148억 엔(약 1천600억 원)의 매상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2009년 현재).

호사카 씨가 대표로 있는 도쿄 워커즈 콜랙티브 협동조합에는 51개 회원 조합에서 약 570명 조합원이 일하고 있다. 51개 단위 조합의 사업을 업종별로 나눠 보면 히그라시와 같이 고령자들을 위한 주문 도시락 및 식사 서비스(12조합), 운송 등 생협의 업무 위탁(18조합), 빵 쿠키 제조(5조합), 보육서비스(5조합)가 가장 많고, 그밖에 장애자 취업을 위한 카페 운영, 노인 건강을 위한 체조 지도, 사무



간식을 제공해 주고 있는 보육원 아동들의 방문을 받고 활짝 웃고 있는 히그라시 조합원

보조, 이벤트 대행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조합도 있다. 기본적으로 히그라시와 같은 이들 단위 조합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연합 조직으로서 도쿄 워커즈 콜랙티브 협동조합은 단위 조합의 설립을 지원하며, 경영을 지원한다. 그리고 생협과 연계해 식자재를 공동 구입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을 위한 공제 제도도 실시하면서 단위 조합의 경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도쿄 워커즈 콜랙티브 협동조합을 비롯한 전국의 노동자 협동조합의 당면한 과제는 협동 노동에 의한 협동조합의 법제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역사가 40년이 넘었지만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어, 많은 조합들이 기업조합, 유한 회사, NPO로 등록해 활동을 하기도 한다. 노동자 협동조합의 확대 발전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법제화 운동과 함께 현재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고령자, 장애자, 가정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인 취약 계층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조합을 육성하는 것이다. 호사카 대표는 "워커즈 콜랙티브는 사회적 문제, 지역적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그들과 일하는 조합을 늘려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라고 말한다. 단위 조합에서 장애자가 함께 일하고 있는 경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이들 단위 조합은 별도의 경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 시 사 점 ···

- 워커즈 콜랙티브는 협동조합으로 마을만들기의 기치를 걸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문제 해결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 특히 장애자, 고령자 등 취업 취약층의 고용 창출에 주는 의미가 크다는 전망이다.

building hope together

더 많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희망을 나눠주세요.

희망제작소는

지역과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대안을 만듭니다.
농촌과 지방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나갑니다.
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웁니다.
공공리더와 시니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시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사회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1만명 시민의 힘으로 움직이는 시민참여형 연구소입니다.

희망제작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각종 강연,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희망제작소 발간도서 구입 및 교육, 강연 수강 시,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특별한 회원모임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연간 사업 활동을 정리한 애뉴얼리포트를 매년 보내드립니다.



후원하기

후원회원 가입 문의 : 02-2031-2130 / give@makehope.org
후원계좌 :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110-01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290-11 비전빌딩 2~4층 | 전화번호 02-3210-0909 | 팩스 02-3210-0126